

MWC 첫 방문 SK 최태원 회장, ‘AI 조력자’로 나서

**-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ICT 개척에 힘쓰는 SK임직원과 한국 스타트업 격려**

**- 세계 유력 기업 · 한국 AI 테크 기업 CEO들과 미팅하며 AI 협력 논의**

**- “AI기술이 다른 영역과 융합해 사람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

**[2023. 2. 27] - 보도참고자료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 3대 ICT 박람회인 ‘MWC23’에 첫 참가해 한국 인공지능(AI)의 저변을 넓히는 ‘AI 조력자’로 나섰다.

2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같은 날(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23’에서 글로벌 ICT시장을 개척하는 SK임직원을 격려하고, 세계 유력 기업 CEO들과 회동하며 AI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등 AI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탰다.

최 회장은 MWC에 마련된 국내외 전시관을 방문해 최신 기술 동향을 확인하면서, AI서비스, 로봇, 6세대 이동통신 트렌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AI를 지향하겠다는 철학도 공유했다. 최 회장은 기자단과 만나 “SK텔레콤이 통신회사에서 AI 컴퍼니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키워온 기술들을 다른 영역과 융합해 사람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부스에 전시된 데이터 AI 서비스(리트머스)를 둘러본 후 “AI가 탄소 감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함께 ‘K-AI 얼라이언스’에 참여 중인 7개 회사 대표들의 서비스 설명에 귀기울이며, 향후 AI 생태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K-AI얼라이언스’에는 팬텀AI, 몰로코, 코난 테크놀로지, 스윗, 투아트, 사피온, 베스핀 글로벌 등 AI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부산EXPO와 ICT 연계를 묻는 질문에는 “부산 EXPO는 기술을 잘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이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인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 디지털 관련 따뜻한 기술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MWC 일정을 마친 뒤 28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 포르투갈 리스본, 덴마크 코펜하겐을 차례로 방문한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각국 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회동하며, 부산EXPO 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SKT PR실 혁신PR팀 윤태구 매니저(02-6100-3812)**

|  |
| --- |
| **※ 사진설명**1.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3’ SK텔레콤 전시관에서 AI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최태원 회장2.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의 AI반도체 ‘사피온 X220’을 들어보이고 있다.3. 최태원 회장이 AI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끝>**